

는 거네? 그렇게 어미를 찾아서 이름을 ‘참眞이슬露’로 바꿨더니 다시 인기가 상승하여 판매가 좋아졌어.

그런데 곧잘 팔리니 이번에는 한자를 빼버리고 ‘참이슬’로만 판매했네? 이걸 또 아니지. 초심의 뜻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 언제 진로를 버리겠나. 결국에는 다시 ‘진로이즈백’이 나왔잖아.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항상 되돌아보며 핵심가치, 어미를 찾아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해.

어려서 학교 다녀오면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소리로 누굴 찾아? “엄마, 집에 있어?” 그랬지?

매출이 떨어지거나 일이 잘 안 풀리잖아? 그럼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이름에는 처음의 깊은 생각이 많이 녹아 있거든. 그 어미로 돌아가 보는 거야.

나도 문제에 봉착한 마케터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 어미를 찾아 이름에서 답을 찾아준 적이 적지 않았어.